108 조사에게 올린 茶 공양

해운정사, 11월 1일 제4회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

깨달음의 법이 전해내려 오는 것을 감사하며 부처님과 108명의 조사 스님에게 차를 올리는 다례재가 봉행된다.

부산 해운정사(조실 진제)는 오는 11월 1일 오전 11시 '제4회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佛祖心印傳燈茶禮大齋)'를 경내 불심인조사전 앞에서 봉행한다.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는 2,600년 전 석가모니에서 가섭존자에게 전해져 인도, 중국, 한국을 거치면서 오늘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불조(佛祖)의 심인법(心印法)을 계승한 108명의 적전(嫡傳) 방전(傍傳) 조사(祖師)들에게 헌다공양을 올리는 행사다. 다례재는 2015년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해마다 음력 9월 24일에 열리고 있다. 올해는 특히 부산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함께 지역 어르신 1,500여 명을 초청해 한국, 중국, 일본, 서양의 차 문화도 선보인다. 이어 김성녀 국악인의 축하공연과 점심공양, 선물증정 등이 어우러져 흥겨운 시민축제 한마당도 펼쳐진다.

한편, 다례재 행사에 맞춰 해운정사에서는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2박3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참선하는 용맹정진도 진행되며 회향과 함께 다례재를 시작한다. 용맹정진 동참 희망자는 해운정사 종무소에 접수, 참여 가능하다. 참가비는 스님은 무료, 일반 불자는 6만원이다. 해운정사는 "현재 해운정사에 주석하고 있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108 조사 심인법의 법맥을 잇는 제79대 적손이며, 한국에 임제종의 한 맥이 살아남아 내려오고 있다. 불자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긍이다"며 "다례재는 불조의 은혜를 기리고 성불을 발원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다."며 관심을 독려했다. (051)746-2256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 길러내는 바다 같은 도량"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대웅전 준공법회 봉행

통영=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 · 법 · 승!" 대중의 소리에 맞춰 대웅전을 마주선 내빈들은 현판에 묶여 있는 오색끈을 잡아 당겼다. 금빛으로 적힌 '대웅전' 현판이 드러났고 참여한 사부대중은 박수치며 함께 축하했다. 푸르른 바다 앞에 위치한 통영,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은 수많은 생명을 길러내는 바다처럼 모든 생명들이 깨어나 더불어 자유인이 되는 불법의 도량이 되길 서원했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 · 이하 통영지원)은 10월 13일 선원 일대에서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대웅전 준공법회'를 개최했다.

준공법회는 점안식으로 시작해 예불이 진행됐다. 법회에서 통영지원은 영상을 통해 불사과정을 소개하고, 김기상 건화종합건축 대표와 김흥석 태흥불교미술원 대표에 감사패를 수여해 불사에 손길을 모아준 모든 대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특히 통영지원은 영상을 통해 "대웅전 설계부터 부처님 조성, 우주탑, 후불탱화 옻칠, 단청 등 큰스님의 가르침을 공부한 제자들이 직접 동참했을 뿐 아니라 국 · 내외 지원의 수많은 인연들이 정성스럽게 손길을 보태 이뤘다는 게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축하 및 격려사가 진행됐다. 통영시 사암연합회 회장 종묵 스님은 통영불자 및 스님들을 대표해 축하했으며 한마음선원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은 불사에 동참 노력한 모든 대중을 격려했다.

혜수 스님은 "5년이란 세월동안 모두가 한마음 되어 오로지 큰스님 가르침

감사의 뜻 전하는 법회
5년의 시간, 정성 모여
3000여 사부대중 동참
"자유인 되는 부처님 도량"

받들고 이어나갈 도량을 장엄했다"며 "그동안 불사 가운데 힘든 경계를 마주했을 때 그 경계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정진해 나갔을 지원장 스님과 두 분 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격려 및 축사 순서가 끝나자 통영지원은 대행 스님이 통영지원 개원법회 당시 설법한 법문을 상영해 처음 시작 당시 일러준 가르침을 재확인했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은 10월 13일 선원 일대에서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대웅전 준공법회'를 개최하고 수많은 생명을 길러내는 바다처럼 모든 생명들이 깨어나 더불어 자유인이 되는 불법의 도량이 되길 서원했다.

법문 후 통영지원 모든 사부대중을 대표해 이옥순 고문은 "더욱 정진하고 노력 할 것을 다짐"했으며 지원장 혜연 스님은 "이 모든 불사가 큰스님의 원력으로 진행됐다"며 "오늘 먼 길 마다 않고 귀한 걸음 해줘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량탑과 큰스님 진영을 모실 계획이 있다. 그 때 도량을 모두 정비해 더욱 따뜻하게 모시도록 하겠다"며 감사했다.

통영지원은 1997년 3월 2일 도천동에 개원했으며 2013년 10월 26일 현재 통영지원이 위치한 광도면에 새로운 대웅전 건립을 위해 첫 삽을 떴다. 2015년 10월 10일 대웅전 상량법회 후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한편, 준공법회에는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 한마음선원 주지 혜솔 스님, 통영시 사암연합회 회장 종묵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 국내 지원장 스님들 및 독일지원장 혜진 스님, 태국지원장 혜단 스님, 본원과 지원 대중 스님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동참했으며 또, 대구지원 어린이와 청년 연합합창단과 안양본원 선법합창단이 참여해 음성공양으로 기쁨을 더해 박수를 받았다.



태고종 자선음악회 "환아에 희망을"

(사)나누우리, 제주 수정사서 환아돕기 음악회

깊어가는 가을밤 음악과 나눔이 함께하는 음악회가 제주도 산사에서 열렸다.

(사)나누우리봉사단이 주최하고 서귀포 수정사(주지 도산)가 주관한 환우돕기 산사음악회는 10월 13일 수정사에서 나누우리 이사장 도산 스님, 승가사원로 지성 스님, 태고종 제주종무원장 지산 스님,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500여 명의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펼쳐졌다.

제주도 태고종 연합합창단의 축가로 막을 연 음악회는 나누우리 이사 법륜스님의 사회로 난치병 어린이 환우 10명에게 치료비 1,000만원을 전달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사진〉 치료비 모연에는 수정사 500만원을 비롯해 나누우리가 300만원, 대구분원 보은사가 200만원을 기탁했다.

도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나눔을 펼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많은 이들의 정성과 화합이 중요하다"며 "작은 금액의 후원금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정성으로 완쾌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은 축사를 통해 "어린 환우들에게 기적이 일어나 약사유리광 부처님의 은덕을 받아 뛰어놀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눔음악회서는 대금연주, 트로트, 탭댄스, 색소폰연주, 판소리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사)나누우리는 지구촌 곳곳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한국불교 태고종 스님과 불자들을 중심으로 2010년 3월 창립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장율사 정신, 천년 엮어 새 역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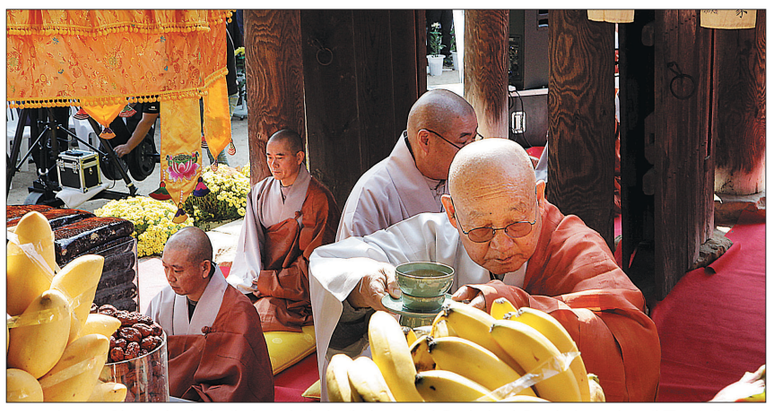
영축총림 통도사 영고재 · 법요식 봉행

"계율을 지키며 하루를 살지언정 파계하고 백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계율을 목숨처럼 여긴 자장율사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곳, 영축총림 통도사가 개산일을 맞아 영고재와 법요식을 봉행하고 개산조의 정신을 되새겼다.

통도사(주지 영배)는 10월 17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개산조 자장율사의 덕을 기리는 영고재를 봉행했다. 법요식은 설법전에서 개최됐으며 이 자리에는 방장 성파 스님, 주지 영배 스님을 비롯해 2000여 사부대중과 김일권 양산시장, 윤영석 국회의원 등 내빈이 참석했다.

법요식은 △삼귀의 · 반야심경 △육법공양 △헌향 · 헌화 △자장율사 행장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영축장학금 총 5,060만원을 스님 53명에게 수여하고 학업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 대중


통도사는 10월 17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개산조 자장율사의 덕을 기리는 영고재를 봉행했다. 영고재에서 방장 성파 스님이 차를 올리고 있다.

스님들의 사진전 '나도 작가다' 시상식과 공로패 수여식도 이어졌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특히 올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통도사를 '과거와 미래를 담고 있는 민족유산'으로 정의하고 '개산일을 새로운 천년을 엮어가는 출발점'이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영배 스님은 "통도사는 역사적인 면에서나 문화적인 면에서 '탁월한 보편가치'를 인정받았으며, 다른 유산들과 구별되는 가치란 '현재성'이라 할 수 있다"면서 "생명력을 잃고 박물관에 박제된 문화유산이 아닌 과거와 미래를 잇는 자리에서 생생히 살아 숨 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22일 시작된 영축문화축제가 괘불이운 및 괘불헌공 등으로 막바지 화려함을 더해가고 있다.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후 처음 마련된 개산문화축제라 그 어느 해보다 사찰을 찾는 발길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10월 14일 진행된 괘불이운 및 헌공에서는 사부대중이 산문에서 금강계단 앞까지 줄을 이어 꽃을 뿌리는 장엄의식을 펼쳤다. 장엄의식 마지막에는 통도사 어린이법회 어린이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현재 통도사는 천진불을 주제로 어린왕자展(전)을 진행 중이다. '동심'으로 일반인들에게 천진불의 의미를 설명하는 색다른 기획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가운데 진행된 어린이 꽃 공양은 마지막 까지 절묘하게 주제를 설명하는 모습으로 인정받았다. 영축문화축제는 10월 28일까지 이어진다.

양산=하성미 부산주재기자

9명의 불자의사들이 전하는 부처님 자비광명 속 호스피스 · 완화의료

돌아가는 길 나의 등불

임종을 앞 둔 말기환자와 보호자에게 알기 쉽게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되어 나와 가족의 임종을 어떻게 맞이하는지에 대한 결심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건강한 불자들도 책을 통해 본인의 죽음 생각하고 지혜의 등불을 찾아, 주변과 도반들에게 부처님 자비광명 속 임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내 용◆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
▸환자와 보호자가 불교적으로 점검 할 질문과 답변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릴 질문과 답변

저자 임정애 외 | 가격 14,000원 | 도서출판 여름 ☎ 02.2278.6990



출판기념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

2018년 11월 1일 (목)

순서

오후 1시 30분 축하 말씀
오후 2시 – 2시 30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가 생각하고 준비 할 사항 — 건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임정애 교수
오후 2시 30분 – 3시 호스피스 · 완화의료 왜 필요한가? — 동대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달용 교수
오후 3시 – 3시 30분 돌아가는 길 나의 등불에서 본 호스피스 · 완화의료 — 동대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도연 교수
오후 3시 30분 – 4시 불교적 관점에서 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이해 — 동대일산병원 신장내과 신성준 교수

강의료와 책은 1만원입니다. 저자들의 생생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4 주년을 축하합니다

신비령산 소원천지탑
음이온 명상치유 선도량

마이산탑사

회 주 혜명스님
주 지 진성스님

총 무 정해스님
교 무 보문스님
기 획 정원스님

봉 사
연탄나눔 봉사
갑룡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진안군 어르신 생신잔치 봉사
전주교도소 불교반 특별법회
사랑의 백미나눔
대구분원 혜인정사 색소폰 봉사밴드
대구분원 혜인정사 연꽃봉사단
마이산탑사 색소폰 봉사밴드
마이산탑사 나누우리 봉사단



■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367 ☎ 063)433-0012 www.maisantapsa.co.kr